

인플레 경계 높은 상황 속 유가·관세 갈등 격화, 3대지수 하락



미국시황/ESG 김윤정 _yunjeong.kim@ls-sec.co.kr
RA 성현영 _hyseong@ls-sec.co.kr

중동 여파에 투심 위축, 3 대지수 약세 와중 반도체 강세

- 미 증시는 DOW -1.18%, S&P500 -0.58%, NASDAQ -0.32% 하락. 에너지, 유틸리티 강세, 헬스케어, 금융, 소재 등 약세
- 중동 정세 격화에 지수 전반 위험회피심리 부각에 따른 약세. 한편, 반도체주는 인텔(+9.0%)의 PC 용 CPU 가격 인상 발표를 비롯해 강한 수요를 보이며 기술주 약세압력을 상쇄.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1.3%

연휴기간 중동지역 지정학 리스크 확대에 국제유가 ↑

- 국제유가 상승 WTI \$93.0(+1.7%), Brent \$97.9(+1.0%). 사우디-후티 반군이 바브엘만데브 해협 통제권을 두고 전면전 수준의 강도 높은 공격이 오가며 유가 상방압력 확대
- 미 행정부는 이란 민간항공사 등 제재를 강화. 한편, 하르그섬에 폭발음이 들렸다는 소식과 이란 혁명수비대의 미군 무인잠수정 나포 소식 등 미-이란 역시 군사갈등 확대 양상
- 골드만삭스는 선박공격 확대시 브렌트유가 \$120 까지 오를 수 있다며, 비축유 방출을 통한 유가 방어에 한계가 있다고 언급

미국-캐나다 간 오가는 보복관세, 무역전쟁 양상도 경계

- 캐나다는 8 일부로 대미 관세정책 발표. 새 관세율은 15~50%, 종이제품·건설자재·가전제품·농산물 등 약 900 개 품목(약 200 억 달러 규모)에 적용. 미국산 알루미늄 및 철강에 대한 관세율 50%로 기존 대비 2 배 확대, 미국이 캐나다산 철강·알루미늄에 적용한 관세율과 동일한 수치 적용
- 이는 앞서 미국이 캐나다산 약 200 억 달러 규모 제품에 대해 부과한 50% 관세에 대한 보복조치.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의 보복관세에 재보복 조치로서 정부조달계약(다자공급자계약제도, MAS)에서 캐나다산 제품을 제외할 것을 지시

티커	종목명	수익률 (1D,%)	내용
INTC	인텔	+9.1%	일론 머스크 테라랩 수혜 기대감에 주가 상승. 노스랜드시큐리티스는 투자이건 '시장수익률 수준' → '시장수익률 상회'로, 목표주가를 \$120로 상향. 한편 10월 초 PC용 CPU가격 10% 추가인상을 예고, 올해 세번째 인상에 해당. 저마진 소형코어 제품군 단종 검토 소식 보도. 또한 ASML의 차세대 High NA EUV 노광장비로 웨이퍼 100만장 처리 달성하며 공정 기술 진전을 입증한 점도 주가에 긍정적
QCOM	퀄컴	+3.2%	아마존AWS AI 인프라 지원을 위해 아마존(-0.6%)과 최대 \$60B 규모의 데이터센터 인프라(반도체 및 광네트워킹 제품) 구축 파트너십 발표. 아마존을 대상으로 주당 \$161.26 고정 행사가의 보통주 신주인수권(워런트) 부여
SPCX	스페이스X	+3.7%	피보탈 리서치 그룹은 투자이건 '매수', 목표주가 \$220 제시하며 커버리지를 개시. 한편 11일 마감 후 나스닥100 지수 리밸런싱 결과 발표를 앞두고 패시브 자금 유입 기대 ↑. JP모건은 리밸런싱 후 비중이 2.25%까지 확대 가능하다고 코멘트
BSX	보스턴 사이언티픽	-5.9%	사이버공격에 의한 네트워크 장애 여파로 3Q 및 연간 매출·EPS 가이드نس 미달 전망을 발표하며 주가 하락. 경영진은 장기적 피해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하며 10/28 실적발표에서 수정 가이드نس 제시 예정
HOOD	로빈후드	-3.9%	NFL 시즌 개막 앞두고 예측 시장 확대를 위해 크립토탕커 및 OG닷컴 지분 취득 계약 체결. 예측 시장 청산·인프라 위탁, 신규 허브 개설 등 파생상품 인프라 확장 발표